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999년 9월

한국경제연구원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제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산업생산/고용/소비/투자/경기
2. 대외거래부문
수출입/국제수지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수출입물가/부동산가격/명목임금
4. 통화·금융부문
통화/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금리/환율 및 외환보유고

제2장 해외경제동향 및 전망

1. 성장
미국/일본/ EU
2. 원자재가격
3. 국제금리·환율

제3장 99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2. 물가부문
3. 대외거래부문
4. 금융부문
통화/기업자금사정/금융시장/장단기금리/환율

제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2. 향후 정책방향

<부록>

1. 경제정책정보
2. 주요경제통계

제 1장

국내경제동향

1. 실물부문

경제성장(2/4분기)

- 2/4분기중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부문과 수출의 증가세가 확대된데다 건설투자의 감소세가 둔화되면서 전년동기대비 9.8% 증가.
 - 민간소비(9.0%)는 승용차, PC, 가구 및 가전제품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 증가세(42.8%)가 크게 확대된 데다 의류, 신발 등 준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증가세(7.9%)로 반전되면서 증가세 확대.
 - 설비투자(37.2%)는 기계류 전반에 대한 투자(32.3%)가 크게 확대되고 자동차, 선박, 운수장비투자(49.7%)에 대한 투자증가가 계속되면서 증가세 확대.
 - 건설투자(-8.5%)는 건물건설투자(-29.7%)가 부진한 반면 도시토목, 공항,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확대(16.6%)에 힘입어 감소 폭이 둔화.
 - 상품수출(18.8%)은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제품의 호조세가 지속된 데다 섬유, 의복 등 경공업제품의 수출도 증가세로 반전되는데 힘입어 증가세 확대.
 - 반면 정부소비(-2.6%)는 인력감축 및 경상경비예산의 긴축운용으로 감소세 지속.

<표 1> 국내총생산(95년가격 기준)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1997	1998					1999		
	1/4	1/4	2/4	3/4	4/4	연간	1/4	2/4	상반기
국내총생산	4.9	-3.6	-7.2	-7.1	-5.3	-5.8	4.6	9.8	7.3
민간소비	4.5	-9.9	-11.2	-10.4	-6.9	-9.6	6.2	9.0	7.6
정부소비	1.7	1.3	-0.7	-0.6	-0.4	-0.1	-1.7	-2.6	-2.2
건설투자	-1.9	-5.9	-7.8	-12.0	-13.7	-10.2	-13.7	-8.5	-10.8
설비투자	4.2	-38.3	-46.1	-39.3	-27.4	-38.5	12.9	37.2	24.8
상품수출	11.5	27.1	16.5	9.5	11.5	15.6	12.7	18.8	15.9
상품수입	7.9	-27.7	-27.3	-28.7	-14.8	-24.6	26.3	31.4	29.0

자료: 한국은행

산업생산

- 산업생산은 내수신장과 수출호조에 힘입어 2/4분기 22.7%에 이어 7월중에도 33.1%의 빠른 증가세를 보임.
 - 업종별로는 반도체(49.9%), 자동차(118.9%), 사무회계용기계(146.8%) 등 중화학공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으며
 - 생산증가세가 일부 경공업(담배(-20.4%), 인쇄출판(-0.3%))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공업에도 확산.
- 출하는 수출호조세가 지속되고 내수신장이 확대되면서 6월 30.7%, 7월 33.0%의 높은 증가세 지속.
 - 내수출하는 자동차, 기계장비, 제1차금속,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폭 확대
 - 수출출하는 반도체, 사무회계용기계, 자동차, 음향통신기기 등에서 호조
- 3월 이후 꾸준히 신장되어 오던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월중 81%를 기록하면 97.8월 이후 처음으로 80%대 진입.
- 생산증가율이 크게 높아지면서 전년동기대비 재고감소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전월대비로는 5월 이후 플러스 증가율이 지속.

<표 2 > 산업생산 및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주: 재고는 기말기준
자료: 통계청

고용

- 7월중 취업자는 전년동기비로는 2.4%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월대비로는 4개월만에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3월 이후 개선 추세를 보이던 고용사정이 7월 들어 다소 주춤.

·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이 계절적 요인으로 그리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97	98			99			
		연간	6월	7월	연간	1/4	2/4	6월	7월
생산	생 산	5.3	-14.0	-14.3	-7.3	12.5	22.7	29.7	33.1
	· 중 화 학	9.3	-13.4	-12.7	-4.8	16.6	27.5	35.6	39.7
	· 경 공 업	-6.3	-17.7	-19.3	-16.0	-0.1	9.5	14.1	15.5
	출 하	6.8	-13.3	-13.0	-7.1	14.1	24.4	30.7	33.0
	· 내 수	1.2	-27.8	-27.9	-23.0	8.8	20.6	27.0	31.9
	· 수 출	22.2	19.4	20.3	28.5	21.9	29.7	35.7	34.4
	재 고	5.2	-8.0	-8.7	-17.3	-18.5	-16.7	-16.7	-15.2
	(계절조정전월비)	(5.2)	(0.2)	(-1.8)	(-17.3)	(-8.9)	(-0.1)	(1.6)	(0.2)
	평 균 가 동 률	79.0	66.3	64.6	68.1	71.3	76.8	79.7	81.0

이 공공근로규모 축소로 인해 감소세로 반전.

· 반면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은 경기호조로 전월비 증가세를 지속.

- 취업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6.2%를 유지.

< 표 3 > 고용관련지표 추이

주: 1) 전년동기비(%)
자료: 통계청

소비

- 경기의 빠른 회복세와 함께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소비

	1997	1998		1999					
	연간	상반기	연간	1/4	2/4	5월	6월	상반기	7월
경제활동참가율(%)	62.2	60.6	60.7	58.6	61.0	61.0	61.4	59.8	61.2
취업자(천명)	21,106	20,002	19,994	19,105	20,362	20,393	20,604	19,734	20,558
취업자증가율 ¹⁾	1.4	-4.5	-5.3	-3.3	0.6	0.5	1.7	-1.3	2.4
농림어업	-1.8	6.6	4.0	-12.1	-7.5	-7.7	-6.3	-9.5	-4.6
제조업	-4.5	-12.2	-13.0	-6.6	1.7	1.7	4.0	-2.6	5.4
건설업	1.7	-16.1	-21.3	-24.0	-8.7	-8.4	-4.5	-16.5	0.5
실업자(천명)	556	1,330	1,461	1,748	1,435	1,402	1,356	1,592	1,349
실업률(%)	2.6	6.2	6.8	8.4	6.6	6.4	6.2	7.5	6.2

관련 지표의 증가가 가속되고 있음.

- 도매업과 소매업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도소매판매액은 6월 14.2%에 이어 7월에도 증가세 확대.
- 내수용소비재출하도 자동차, 휴대용전화기 등 내구재에 대한 지출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 확대.

<표 4> 소비지표 추이

단위:전년동기비(%)

	97	98		99			
	연간	7월	연간	1/4	2/4	6월	7월
도소매 판매	3.2	-17.5	-12.7	6.0	10.8	14.2	18.6
· 도매	3.2	-13.3	-8.3	3.9	10.2	12.7	17.8
· 소매	4.5	-15.3	-11.1	3.9	8.1	10.1	13.2
내수용소비재출하	-1.8	-22.8	-21.4	13.1	17.1	20.3	23.4
· 내구재	4.3	-32.0	-28.5	39.3	32.3	34.8	56.3
· 비내구재	-4.5	-18.4	-17.4	3.2	10.4	13.3	9.9

자료: 통계청

투자

- 금년 들어 증가세로 반전된 설비투자지표들이 6월과 7월중 높은 증가세 지속.
- 동행지표인 설비투자 추계 및 기계류내수출하는 50%대, 그리소 기계류수입

액은 40%대의 높은 증가세 지속.

-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는 7월중 철도차량, 발전설비 등 공공부문의 발주 감소로 6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증가세 유지.

<표 5 > 설비투자 지표 추이

단위: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6월	7월
국내기계수주	3.3	-38.9	-43.8	-22.2	-10.9	-30.5	16.9	23.6	51.1	29.4
공공	-2.5	-66.3	-63.5	-14.1	-9.8	-45.1	5.8	65.8	95.8	16.7
민간	4.6	-30.8	-39.5	-23.6	-11.1	-27.3	18.5	19.1	44.6	32.3
기계류내수출하	1.2	-32.9	-45.4	-43.7	-28.8	-38.0	1.0	15.7	59.7	56.7
기계류수입액	-22.8	-53.1	-57.4	-55.2	-44.0	-52.9	7.9	20.2	46.9	43.2
설비투자총계	-6.8	-31.3	-48.6	-43.2	-28.7	-38.7	10.9	29.4	54.6	57.2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는 4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

-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은 4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
- 선행지표인 건축허가면적은 경기회복과 함께 공업용 및 상업용허가면적이 증가한 데 기인하여 증가세가 크게 확대.
- 7월중 국내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발주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

<표 6 > 건설투자 지표 추이

단위:전년동기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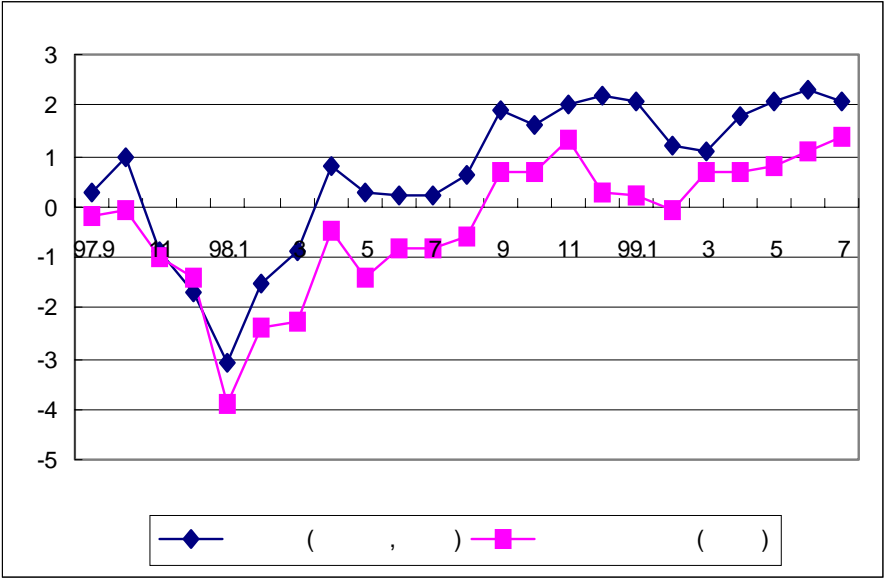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6월	7월
국내건설수주	5.4	-23.4	-53.4	-44.8	-44.9	-42.5	-45.3	27.5	-6.2	0.1
공공	7.6	-11.0	-13.8	-8.4	-36.7	-21.4	-53.8	-12.4	-61.5	-42.4
민간	-5.9	-41.0	-64.7	-65.7	-56.5	-57.6	-30.7	66.2	80.1	78.1
건축허가면적	-0.4	-22.9	-59.6	-63.8	-66.1	-55.0	-45.8	22.4	16.8	46.8
공업용	-26.2	-67.8	-72.9	-69.4	-60.9	-68.2	24.2	177.0	272.3	240.8
건설기성	-	-	-	-17.1	-15.2	-	-1.0	3.8	7.4	9.8

자료: 통계청

경기

- 하반기 들어서도 내수호조와 수출신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건설관련지표의 움직임도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현재의 경기국면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상승세를 지속.
- 또한 선행지수도 전월비 증가율이 6월 2.3%, 7월 2.1%를 보이면서 견조한 상승세 지속.

<그림 1> 최근 경기종합지수의 추이



2. 대외거래부문

수출입

- 5월중 증가세로 반전된 수출이 하반기 들어서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입증가세가 더 크게 확대되면서 통관기준 수출입차는 점차 감소.

<표 7> 수출입(통관기준)

단위 : 억달러, 전년동기비(%)

	97년	98년		99년					
	연간	1~8월	연간	1/4	2/4	6월	7월	8월	1~8월
수출입차(통관)	-84.5	254.4	390.3	47.0	71.7	27.4	20.6	15.6	154.9
수출(통관)	1,361.6	868.4	1,323.1	302.6	359.0	129.3	118.2	114.4	894.2
증가율	5.0	1.4	-2.8	-6.1	2.9	12.4	17.9	17.8	3.0
수입(통관)	1,446.2	614.0	932.8	255.7	287.3	101.9	97.6	98.8	739.3
증가율	-3.8	-37.7	-35.5	8.1	22.0	31.5	37.6	38.8	20.4

자료: 산업자원부

- 수출은 7월과 8월 각각 17.9%, 17.8%의 높은 증가세 유지.
 - 품목별(1~7월중)로는 반도체(14.2%), 정보통신기기(51.4%), LCD(268.4%) 및 승용차(18.6%) 등 중화학부문이 크게 증가한 반면 화공품(-5.5), 철강·금속제품(-15.4%) 그리고 경공업부문은 부진.
- 수입은 7월과 8월 각각 37.6%, 38.8%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며 5월 이후의 급증세가 가속.
 - 용도별로는 생산, 투자, 수출 등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세의 영향으로 자본재 수입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고 소비재와 원자재도 내수경기회복과 국제유가상승의 영향으로 증가세.

〈표 8〉 품목별 수출과 용도별 수입

단위 : 백만달러, 전년동기비(%)

		1998		1999				
		1~7월	연간	1/4	2/4	6월	7월	1~7월
수출	중화학공업	0.7	-2.2	3.4	6.7	14.9	27.3	7.9
	경공업	-2.4	-3.7	-20.1	-5.4	8.4	-3.8	-11.5
수입	원자재	-33.5	-34.3	-4.2	17.3	25.8	33.2	9.6
	자본재	-39.8	-35.5	20.0	29.7	38.2	56.1	28.8
	소비재	-45.5	-39.5	26.7	18.1	33.2	7.4	19.8

국제수지

- 경상수지는 6월과 7월중 각각 24.6억달러와 28.0억달러 흑자를 보임에 따라 금년 7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54.9억달러.

- 상품수지는 수출호조로 6월과 7월중 각각 29.3억달러와 29.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
- 소득수지는 대외이자지급감소로 적자폭 축소.

- 국민은행(3억달러) 등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유입과 산업은행 및 포철의 해외DR발행(9.9억달러)에도 불구하고 IMF자금 조기상환(6월:12억달러, 7월15.9억달러) 및 국내기업의 중장기채 상환 등으로 자본유출이 크게 늘어나 6월과 7월중 유출초를 기록.

<표 9 > 국제수지

단위:억달러

	97년	98년		99년					
	연간	1~6월	연간	1/4	2/4	5월	6월	7월	1~7월
경상수지	-81.7	220.4	405.6	61.9	65.0	21.0	24.6	28.0	154.9
상품수지	-31.8	211.8	416.3	67.8	81.2	25.2	29.3	29.5	178.5
서비스수지	-32.0	7.9	6.3	-1.6	-4.6	-0.6	-2.7	-0.9	-7.1
소득수지	-24.5	-19.7	-50.5	-9.8	-16.5	-5.7	-3.4	-2.6	-28.8
경상이전수지	6.7	20.4	33.5	5.5	4.9	2.1	1.4	2.0	12.4
자본수지	13.1	6.6	-32.5	10.1	-9.9	2.9	-15.3	-2.9	-2.7

자료: 한국은행

3. 물가부문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 98년 3월 이후 하향안정추세를 지속하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8월중에는 각각 전월비 1.0%, 0.8% 상승세로 반전.
- 이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류 가격상승으로 공업제품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월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공급차질로 농수산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

<표 10 >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 추이

단위: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연간	1~8월 ¹⁾	연간	1/4	2/4	7월 ²⁾	8월 ²⁾	1~8월 ¹⁾
소비자물가	4.5	3.3	7.5	0.7	0.6	0.3(-0.3)	0.9(1.0)	0.7
농축수산물	3.8	1.8	6.0	9.3	8.2	4.6(-1.6)	6.8(6.8)	5.5
공산품	4.3	3.8	11.2	-0.9	0.0	0.7(-0.1)	1.5(0.2)	0.5
공공서비스	5.1	7.7	9.5	3.4	1.9	1.1(0.1)	1.1(0.1)	1.0
개인서비스	5.3	2.8	5.3	-1.1	-1.5	-0.9(0.0)	-0.8(0.0)	-0.3
생산자물가	3.9	5.0	12.2	-3.5	-3.3	-2.9(-0.2)	-1.6(0.8)	-0.9
농축수산물	1.9	7.8	3.9	16.6	15.2	7.0(-0.3)	6.7(3.7)	3.3
공업제품	3.4	5.2	14.5	-5.4	-5.0	-4.1(-0.3)	-2.6(0.4)	-1.7
서비스	5.4	3.1	8.1	-3.5	-3.4	-2.0(0.4)	-1.1(0.4)	-0.2

주: 1) 전년말월비 증가율

2) ()내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수출입물가

- 수출물가는 국제유가상승에 따른 석유화학제품가격 상승 그리고 수요증가에 따른 반도체가격상승의 영향으로 8월중 전월대비 증가세로 반전.
- 수입물가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월비 증가세 확대.

<표 11> 수출입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1997	1998		1999				
	연간	1~8월 ¹⁾	연간	1/4	2/4	7월 ²⁾	8월 ²⁾	1~8월 ¹⁾
수출물가(원화기준)	6.6	-13.3	31.3	-32.9	-19.0	-16.1(-0.6)	-7.4(4.1)	-2.2
수입물가(원화기준)	9.5	-10.5	28.2	-28.1	-14.6	-9.9(0.9)	-0.2(5.6)	4.5
원자재	10.7	-12.6	27.9	-31.7	-16.5	-10.7(1.3)	0.3(6.4)	6.6

주: 1) 전년말월비 증가율

2) ()내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부동산가격

-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주택매매 및 전세가가 꾸준한 상승세.
- 7월중에도 부동산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됨으로써 금년 7월까지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각각 2.4%, 11.2%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큰 오름세를 보임.

<표 12 > 부동산가격 추이

단위 : 전월(년)비(%)

		1997	1998	1999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7월
주택매매가	전도시	2.0	-12.4	1.2	0.2	0.3	0.1	0.2	0.0	0.3	2.4
	서울(아파트)	4.7	-14.6	3.1	0.4	0.7	0.5	0.8	0.7	1.6	8.1
주택전세가	전도시	0.9	-18.4	2.1	2.8	2.0	1.4	1.1	0.6	0.8	11.2
	서울(아파트)	1.6	-22.4	5.0	6.4	3.3	2.1	1.8	1.4	1.9	23.9

자료: 주택은행

명목임금

■ 6월중에도 명목임금(전산업)은 전년동월비 13.7%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면서 상반기중 8.0% 상승.

·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수도업(상반기중 14.6%), 운수·창고·통신업(13.4%) 그리고 제조업(11.4%),이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1.2%),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2.9%)은 부진.

<표 13 > 명목임금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6월	상반기
전산업	7.0	0.1	-1.2	-8.1	-0.4	-2.5	5.6	7.9	9.8	13.7	8.0
제조업	5.2	-2.6	-3.9	-10.1	4.8	-3.1	9.0	12.6	13.9	14.8	11.4

자료: 노동부

· 99년중 명목임금의 상승은 정액급여보다는 초과근로시간(6월중 31.3%증가) 증가에 따른 초과근로수당과 특별급여의 증가에 기인.

<표 14 > 내역별 명목임금 추이

단위: 전년동기대비(%)

	1998	1999					
	4/4	1/4	2/4	4월	5월	6월	상반기
정액급여	1.1	3.3	6.3	7.3	4.3	7.2	4.8
초과급여	-10.6	20.8	33.6	27.6	32.0	40.8	27.4
특별급여	-1.4	8.9	19.9	2.5	38.2	24.8	13.8

자료: 노동부

4. 통화 · 금융부문

통화

■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M2 및 MCT 증가율 8월 들어 소폭 증가세로 반전

- 총통화(M2) 증가율은 4월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으나 대우사태 이후 공사채형 수익증권 이탈자금이 은행권으로 유입됨에 따라 7월 24.2%에서 8월중에는 24.8%로 소폭 상승.
- MCT 증가율 역시 4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 들어 총통화증가율의 증가함에 따라 7월중 6.2%에서 8월에는 7.6%로 크게 증가.
- 3월중 14.1%까지 상승하였던 M3증가율은 그 동안 M3증가를 주도해온 투신사 수신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하락세를 지속하여 6월중 12.7%까지 하락
- M3증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시중유동성은 실물경제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15> 주요 통화총량 추이

단위: 평잔, 전년동기대비(%)

	1997	1998	1999							
	연간	연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본원통화	-15.0	-7.2	-8.7	4.4	7.2	10.9	12.0	13.3	15.4	14.4
M2	19.2	19.1	26.3	29.9	33.7	34.6	30.6	27.4	24.2	24.8
MCT	15.3	7.6	3.1	4.9	6.9	6.9	6.3	6.3	6.2	7.6
MCT ⁺¹⁾	18.1	7.4	2.0	2.4	3.5	3.5	2.9	3.3	3.2	5.0
M3	16.3	12.8	13.1	13.8	14.1	13.9	13.3	12.7	-	-

주: 1) MCT+ = MCT + 표지어음 + RP + 금융채

자료: 한국은행

■ **한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적 통화기조 유지**

- 3/4분기중 한은은 대우사태 및 향후 시중금리의 상승 전망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되자 탄력적인 RP운용등 신축적인 통화운용 기조를 유지.
- 그러나 8월중 투신권 이탈자금의 유입으로 은행권의 여유자금이 증대함에 따라 잉여자금 흡수차원에서 RP 규모는 전월대비 다소 확대
-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금리의 차별화 현상이 심화
- 은행권과 제2금융권과의 콜 차입금리가 0.3~0.4%p 정도 확대되는 양상

기업자금사정

■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은 줄고 은행대출 증가**

- 3/4분기 중 투신사의 수신감소 여파 등으로 기관들의 회사채 및 CP 인수여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은 감소
- 반면,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기업들의 은행대출은 8월 들어 큰 폭으로 증가.
- 이는 투신사의 회사채 인수여력이 줄어든 데다 회사채 발행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기업의 CP 및 회사채 발행수요 일부가 은행대출로 바뀌고 있는 데 기인
- 중소기업 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표 16 > 기업의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및 은행대출 추이

단위:기간중 증감, 억원

	99.6	7	8.1~25 ¹⁾
회사채 발행(순)	4,414	10,183	-11,400
CP 발행(순)	-85,161	45,138	-32,958
주식 발행	51,326	30,590	9,672
은행대출	46,906	41,872	44,807
은행계정	53,438	51,936	48,947
신탁계정	-6,532	-10,064	-4,140

주 : 1) 회사채 및 주식발행은 1~26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전반적인 기업 사정은 양호

- 대우그룹 협력업체들은 상업어음할인 애로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으나 전반적인 기업자금사정은 아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은행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대기업들은 이미 작년중 회사채 발행과 금년 상반기중의 주식발행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

· 기업의 긴급자금수요를 나타내는 당좌대출 소진율도 21%의 낮은 수준 유지

<표 17 > 은행대출추이

단위:증감액, 억원

	1999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은행(신탁포함)대출	5,118	32,848	17,333	43,867	46,907	41,872	-
대기업대출	-5,493	2,227	-20,285	7,000	-1,000	-7,000	-
중소기업대출	10,641	6,187	12,181	16,000	17,000	25,000	-
가계대출	456	12,208	14,534	18,000	27,000	17,000	-
당좌대출 소진율	22.7	26.8	22.2	22.1	22.4	21.6	21.4

주: 당좌대출 소진율은 기말기준임
 자료: 한국은행

-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6월중 0.06%까지 하락하였으나 8월에는 대우사태의 여파로 1.12%로 급증

· 그동안 저조했던 신설법인/부도법인의 비율이 1999년 상반기 들어 경기활성화와 함께 벤처기업 등 기업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표 18 > 전국 어음부도율(금액기준)및 부도업체수 추이

	1997	1998					1999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4월	5월	6월	7월	8월
전국어음부도율(%) ¹⁾	0.40	0.54	0.43	0.41	0.17	0.38	0.11	0.12	0.20	0.10	0.06	0.09	1.12
서울	0.36	0.43	0.32	0.35	0.13	0.30	0.09	0.11	0.14	0.08	0.04	0.09	1.21
전국부도업체수(개)	17,168	9,449	6,357	4,221	2,801	22,828	1,932	1,662	591	543	528	519	482
서울	6,686	3,315	2,278	1,493	1,022	8,108	721	651	244	189	218	204	164
신설법인/부도법인(배) ²⁾	3.4	1.5	2.3	3.3	5.5	2.6	10.1	12.0	11.2	11.3	13.5	14.8	15.8

주 : 1) 전자결제액 조정, 금융기관 어음부도액 제외
 2) 7대 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수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 **대우사태이후 자금의 단기부동화 심화와 직접 금융시장 위축**

- 대우사태 여파로 투신권에서 이탈한 자금 중 상당부분이 단기부동화되면서 은행의 단기성수신으로 유입.

·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경우 8월중에만 20조9,904억원 감소

· 대우사태 여파로 주식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금융기관의 회사채 및 CP 인수여력이 크게 약화됨에 따라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크게 위축

<표 19 > 금융기관별 주요수신 동향

단위 : 억원

		98년12월 (잔액)	99년4월 (잔액)	5월(증감)	6월(증감)	7월(증감)	8월(증감)	9.14(잔액)
은행	요구불	216,454	207,771	6,878	7,071	-24,232	14,196	220,918
	저축성	2,129,251	2,320,693	-10,493	15,343	55,301	120,935	2,552,636
	CD순발행	91,856	101,360	16,208	3,776	-3,123	-25,925	88,469
	금전신탁	1,558,990	1,404,624	-13,941	5,197	-9,880	-29,021	1,338,205
	소계	3,996,551	4,034,448	-1,348	31,387	18,066	80,185	4,200,228
투신*	공사채형	1,835,392	2,220,754	-4,925	-99,911	-18,084	-209,904	1,824,977
	(장기)	951,264	1,104,753	-1,133	-27,322	-48,871	-40,420	962,087
	(단기)	884,128	1,116,001	-3,792	-72,589	30,787	-169,484	862,890
	(MMF)	133,018	301,281	23,628	3,665	-5,872	-66,044	245,198
	주식형	83,155	184,032	53,015	70,394	109,624	23,332	441,622
소계	3,886,957	4,926,821	66,793	-125,763	67,584	-252,616	2,511,797	
증권	고객예탁금	37,773	89,119	-5,631	-2,032	24,102	-4,656	92,293
	RP	25,247	16,433	-1,699	1,827	-2,995	945	12,280
	상품증권	131,393	120,731	917	24,937	-17,139	8,045	157,750
	차입금	151,922	116,734	44,620	60,209	-28,101	-33,685	168,048
종금	자발어음	223,016	217,325	7,011	-84,656	25,055	-3,519	153,030
	CMA	64,900	44,870	-1,864	-9,230	4,101	461	37,328
	어음매출	116,137	90,384	-9,403	-8,450	-7,483	-7,769	55,040
	소계	404,053	352,579	-4,256	-102,336	21,673	-10,827	245,398
	어음할인	218,308	190,604	-7,562	-37,371	2,962	-4,861	138,844

주: * 14개 종금사 기준
 자료: 한국은행

■ **정부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해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의지 표명**

- 정부는 금융시장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러 차례 금융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투신 및 증권으로부터의 자금이탈을 막지는 못하였음.

- 정부가 8월 13일 수익증권 환매 제한을 부분적으로 해제함에 따라 일시에 대규모 환매 요구 집중 가능성에 따른 제2금융권의 유동성 부족 우려감이 확산되었음
- 이후 정부는 추가적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는 등 시중금리의 상승을 억제하는 강력한 금융시장 안정의지를 표명.

■ **주식시장 불안심리 확산으로 종합주가지수 등락 거듭**

- 3/4분기중 종합주가지수 경기회복 기대감, 저금리 지속 등으로 7월중 3년8개월 만에 1000P를 돌파
- 이후 대우그룹 사태에 따른 불안심리 확산, 장기금리 상승, 외국인의 순매도세 지속 등으로 종합주가지수 8월 들어서에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

〈표 20〉 **주식형 금융상품 추이**

단위: 증감액, 억원

	199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고객예탁금	11,235	-8,841	13,130	35,822	-5,631	-2,032	24,102	-4,656
주식형수익증권	15,538	3,963	20,373	61,003	53,015	70,394	109,624	23,332
뮤추얼펀드 ¹⁾	4,481	649	982	9,723	2,826	7,266	12,974	1,499
단위금전신탁 ²⁾	-	-	-	38,229	24,577	15,298	15,821	7,069
계	31,254	-4,229	34,485	144,777	74,787	90,926	165,326	27,244

주: 1) 납입액 기준 2)주식투자가 가능한 성장형 및 안정성장형 기준.
 자료: 한국은행

■ **8월들어 주식공급물량과 주식관련 자금유입 규모 크게 감소**

- 6월과 7월 각각 7조853억원과 3조 5,488억원을 기록하였던 기업공개와 유상증자 규모는 8월 들어 크게 축소되어 1조2,821억원에 그쳤음
- 주식관련 자금유입 규모 역시 전월대비 크게 감소한 2조5,500억원 정도에 머물렀음.

- 이처럼 주식관련 자금 유입 규모가 줄어든 것은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 지속과 함께 현금보유 비중이 늘고 시중자금이 단기화 된데 기인함.

<표 21 > 주식시장 수급양상 추이

단위 : 억원

	6	7	8(P)
유상증자	70,853	33,723	6,403
기업공개	0	1,765	6,418
소계	70,853	35,488	12,821
고객예탁금 잔액	81,456	105,046	100,902
신용융자잔고	7,869	8,047	8,565

주 :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잔고는 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한국증권전산

장단기 금리

■ 콜금리 은행권 자금사정 호조로 안정세 유지

- 콜금리는 제2금융권의 유동성 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은의 신축적인 RP 운용, 자금의 단기화 현상 지속 등으로 3/4분기중 4.69%에서 안정적인 모습.

■ 3/4분기중 회사채유통수익률 상승세 지속

- 지난 4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압력을 받아오던 회사채유통수익률은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자금이탈로 채권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8월 20일 10%대로 진입
- 예상외의 높은 경제성장률과 시중자금의 단기화 심화,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도 장기금리 상승에 일조

<표 22 > 주요 시장금리 추이

단위:기말기준,연%

	97년	98년	99년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6
콜(익일) (A)	31.32	6.48	6.00	5.04	4.85	4.75	4.74	4.85	4.69	4.69	4.66
CP(91일)	40.77	8.06	7.25	7.05	7.02	6.07	6.45	6.40	7.54	8.23	8.04
국고채(3년)(B)	15.00	6.95	7.05	6.96	6.50	6.64	6.67	7.20	8.45	9.11	9.57
회사채(3년)(C)	28.98	8.00	8.13	8.65	8.10	7.52	8.37	7.96	9.23	10.26	10.59
B - A(%p)	-16.32	0.47	1.05	1.92	1.65	1.60	1.93	2.35	2.85	4.42	4.91
C - A(%p)	-2.34	1.52	2.13	3.61	3.25	2.77	3.63	3.11	3.76	5.57	5.93

자료: 한국은행

■ 8월중 장기금리 급등으로 장·단기 금리차 연중 최고치 기록

- 지난 4월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던 장·단기 금리차가 8월 들어 연중 최고치 기록
- 8월 평균 회사채유통수익률과 콜금리의 차는 5.57%P, 국고채 수익률과 콜금리의 차는 4.42%P로 전월대비 크게 확대.
- 대우그룹의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 및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 등으로 국내해외물의 금리는 하향안정세
- 반면 국내 장기금리는 급등함에 따라 국내외 금리차도 크게 확대.

<표 23 > 국내외 금리차 추이

단위: 기말기준, %, %P

		1999						
		2	3	4	5	6	7	8
국내	국민주택1종(5년, A)	8.6	7.6	7.5	8.3	8.0	8.7	9.5
	회사채(3년, B)	8.7	8.1	7.7	8.4	8.0	9.2	10.3
해외	외평채(5년, C)	7.4	7.3	7.0	7.3	7.3	7.7	7.8
	포털(3년, D)	8.8	8.3	7.8	8.1	8.0	8.3	8.2
A - C		1.2	0.3	0.5	1.0	0.7	1.0	1.7
B - D		0.1	-0.1	0.0	0.3	0.0	0.9	2.1

자료 : 한국은행

<표 24 > 은행여수신금리¹⁾

단위:연%

	1997	1998				1999					
	12월	3월	6월	9월	12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예금평균금리	11.1	14.7	13.0	8.9	7.3	6.9	6.7	6.2	6.00	5.96	5.89
대출평균금리	14.6	16.9	16.5	14.3	11.3	10.8	10.3	9.8	9.33	9.06	8.93
(대 기업)	17.1	19.1	17.4	14.4	11.3	11.0	10.3	9.8	9.09	9.00	9.03
(중소기업)	14.3	16.5	16.2	14.1	10.9	10.1	9.7	9.1	8.56	8.39	8.24
(가 계)	13.2	16.2	16.5	14.7	12.9	11.9	11.7	11.5	11.00	10.46	10.31

주: 1) 월중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환율 및 외환보유고

■ 외환 보유액 사상최고치 경신

- 경상수지 흑자 지속, 외국인 직·간접 투자자금의 유입 등으로 외환수급사정은 공급우위의 상태 지속
- 금년 9월15일 현재 가용외환보유고는 652.8 억달러를 기록하여 다시 사상최고치 경신

<표 25 > 외환보유고 및 거주자외화예금 추이

단위:억달러

	1997	1998	1999년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15
외환보유고	204.1	520.4	536.0	554.7	574.5	592.6	614.1	619.9	649.4	649.8	654.8
가용외환보유고	88.7	485.1	500.9	519.6	544.5	563.8	587.3	604.3	639.8	647.8	652.8
거주자외화예금	45.4	95.0	114.8	108.4	105.0	105.3	96.3	88.9	91.2	97.4	-

주: 가용외환보유액과 외환보유액의 차이가 태국중앙은행과의 스왑한 2억달러만 남게됨으로써
 99년 8월부터는 외환보유액 통계를 가용외환보유액 개념으로 일원화.

자료: 한국은행

■ 원·달러 환율 7월들어 1200원대로 상승한 후 공급우위로 하락세

- 6월에는 1,150원대로 하락하였던 원·달러 환율은 7월들어 외환수급조절대책이 추진된 데다 대우그룹 구조조정, 중국 위안화 절하 가능성 등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1,200원대로 상승
- 특히 대우그룹문제와 더불어 일본 및 유럽지역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자금의 국외이탈로 원·달러환율 상승

- 이후 원·달러환율은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당초 우려되었던 무역수지도 예상 외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8월말에는 1,184.90원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음.

<표 26 > 환율추이

	1997	1998	1999							
	12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US\$	1,695.00	1,204.00	1,175.00	1,223.00	1,227.0	1,188.0	1,186.0	1,157.6	1,204.0	1,184.6
변화율 ¹⁾	-50.2	40.8	2.5	-1.6	-1.9	1.3	1.5	4.0	0.0	1.6
₩/100¥	1,291.36	1,059.91	1,010.53	1,012.84	1,017.8	995.39	974.57	956.61	1,051.34	1,077.18
변화율 ¹⁾	-43.7	21.8	4.9	3.5	4.1	6.5	8.8	10.8	0.8	-1.6

주 : 1)전년말 대비 절상(+), 절하(-)율(%)

자료: 한국은행

가 감소하였기 때문.

· 상품수지는 2/4분기(-846억 달러)에 1/4분기(-742억 달러) 보다 적자폭이 증가.

<표 28 >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3/4	4/4	1/4	2/4
실질GDP 성장률	3.9	3.9	3.7	6.0	4.3	2.3
경상수지(억달러)	-1,435	-2,206	-657	-617	-686	..
소비자 물가상승률	2.3	1.6	1.6	1.6	1.6	2.1

자료: 미 연준, IMF, 미 상무국

일본

- 일본 경제는 1/4분기에 높은 성장을 기록한 영향으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섬.
- IMF는 일본경제가 99년 0.2%, 2000년 1% 성장할 것으로 종전 전망치를 상향조정.

<표 29 >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단위: %

	1997년	1998년			1999년	
		연간	3/4	4/4	1/4	2/4
실질GDP 성장률	1.4	-2.8	-1.2	-3.0	8.1	-0.6 ¹⁾
경상수지(억엔)	114,363	157,845	44,477	40,002	29,927	33,663
소비자 물가상승률	1.8	0.6	-0.2	0.6	-0.1	-0.3

1) Deutsche Bank 추정치

자료: 경제통계월보(일본은행)

E U

- 독일의 IFO 경제연구소에 의하면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은 금년에 2%, 2000년에는 2.6%, 독일의 경우는 금년에 1.5%, 2000년에는 2.4%가 될 것으로

전망(8/4).

- EU 통계청에 의하면 유로지역의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1.1% 상승하여 전월(0.9%)에 비해 오름세가 확대되었음.

2. 원자재 가격

- 현물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및 주요 원유산업 관련 지역의 재해소식 등으로 최근 계속 상승.
- 미국 에너지부(EIA)는 2000년중 국제유가는 과잉재고의 해소와 함께 최근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평균 기준으로 금년보다 10% 내외 상승을 전망.
- 2000년중 대부분의 비철금속가격은 금년보다 상승할 것이나 199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자료: Financial Times)

<표 30 > 유가 및 원자재 가격

	1997	1998	1999			
			5월	6월	7월	8/27
<현물유가>						
WTI(\$/배럴)	17.60	12.14	16.85	19.33	20.52	21.31
Dubai(\$/배럴)	15.21	10.46	14.85	16.04	18.94	19.89
<기타 원자재가격>						
옥수수(센트/부셸)	265.0	213.5	224.3	211.3	203.3	201.7
소맥(센트/부셸)	325.8	276.3	252.3	250.0	263.8	262.7
동(\$/MT)	1,712.5	1,455.5	1,354.5	1,612.5	1,608.5	1,633.5
알루미늄(\$/MT)	1,524.0	1,237.5	1,245.0	1,373.5	1,384.0	1,438.8

자료 : 한국은행

3. 국제금리 · 환율

- 미국 FOMC는 국내수요의 지속적인 강세, 세계경제의 안정, 노동시장의 경색 등을 이유로 연방기금금리와 재할인률을 각각 25bp씩 인상하고 통화정책은 중립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8.24).
- 유로화는 그간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유로지역과 미국간의 성장률 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강세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예상.

<표 31 > 국제금리

	1997	1998	1999			
			5월	6월	7월	9/15
<미국 국내금리>						
재할인율	5.00	4.50	4.5	4.5	4.5	4.5
단기재정증권	5.23	4.47	4.66	4.79	4.75	4.82
장기국채	6.97	5.10	5.83	5.96	6.11	6.11
<여타 주요국 금리>						
일본 재할인율	0.50	0.50	0.50	0.50	0.50	0.50
ECB RP 금리*	2.50	2.50	2.50	2.50	2.50	2.50
영국 기준금리	7.25	6.25	5.25	5.00	5.00	5.00
<유로시장 금리>						
유로 달러	5.81	5.63	5.07	5.37	5.34	5.48
유로 엔	1.00	0.63	0.09	0.13	0.10	0.09
유로 파운드	7.63	6.26	5.37	5.19	5.27	5.46

자료: 한국은행

*: 1999년부터 유럽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이 이양됨에 따라 폐지

■ 최근 엔화 강세는 일본 경제에 대한 낙관적 전망, 일본과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 일본 주식시장의 호황등에 기인.

<표 32 > 주요국 환율

	97.12	98.12	99.5	99.6	99.7	99.9/15
US\$/SDR	1.3493	1.4080	1.3512	1.3359	1.3642	1.3777
¥/US\$	129.94	115.20	119.57	120.83	115.14	104.50
DM/US\$	1.7921	1.6687	1.8761	1.8875	1.8262	-
US\$/£	1.6551	1.6338	1.6025	1.5770	1.6210	1.6136
FFr/US\$	5.9975	5.9900	6.2922	6.3304	6.1247	-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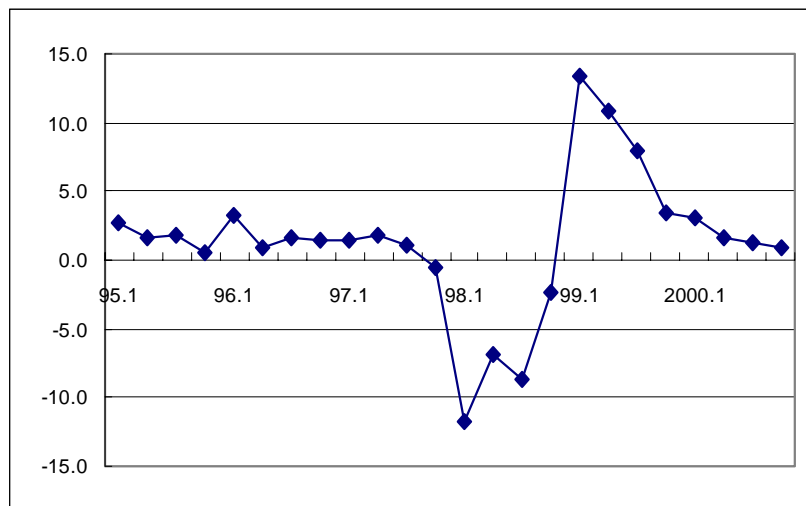
제 3장

1999/2000년 경제전망

1. 실물부문

- 우리경제는 1/4분기중 플러스(+)성장으로 반전한 데 이어 2/4분기에는 9.8%의 높은 성장을 시현하여 경제규모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함. 하반기중에도 8%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연간으로 8%내외의 성장 전망
- 상반기중 물량기준 수출이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국내소비와 설비투자가 빠른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성장(GDP)은 7.2%에 달한 것으로 추계됨.
- 특히, 2/4분기이후 민간소비증가율이 9%대를 유지하고 수출과 투자회복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성장률은 8.5%, 그리고 연간성장률은 8%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그림 2 > 전분기대비 성장률 추이



- 수요증가세가 현저해진 3/4분기중에도 여전히 재고감소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4/4분기중에는 농업생산 증가에 따른 재고 증가세가 예상되는 등 재고확충에 의한 성장효과가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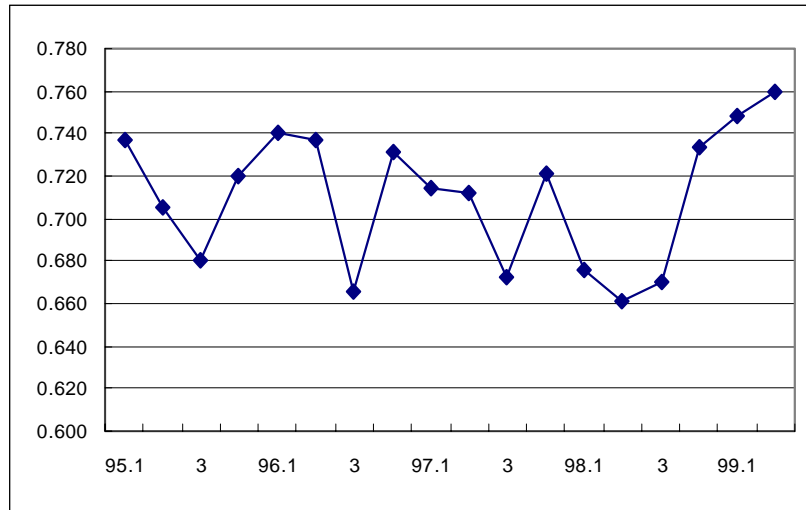
- 생산활동의 증가와 향후 경기호전 기대의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자가 느는 가운데 실업자수가 감소하는 등 노동시장 호전추세의 지속이 예상됨.
 - 예상보다 빠른 실물부문 회복과 정부 실업대책에 힘입어 실업율은 2월(8.7%)을 고비로 낮아지고 있음. 2/4분기이후 취업자수가 2천만명을 넘었으며 경제활동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00만명에 육박하고 있음(7월말 현재 2191만명)
 - 지난 7월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97년 62.2%에 비하면 1%p 낮은 수준임.
- 2/4분기이후 예상되는 10%내외의 성장은 향후 지난 해 저상장에 따른 반등효과가 상쇄되는 4/4분기이후 낮아진 후, 당분간 6%대의 성장률의 지속이 예상됨.
 - 98년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등효과는 내년 1/4분기를 전후하여, 그리고 팽창적인 금융재정정책이 성장에 미치는 시차효과는 내년 하반기중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
 - 99년중 일시적으로 평균소비성향을 초과하는 소비지출이 이루어진 민간소비부문은 이미 평균소비성향수준에 달함에 따라 동부문의 내수 선도 역할은 한계가 있음.
 - 투자의 경우, 향후 경기확장에 따라 지속적 회복이 예상되나 외환위기이전의 설비투자규모를 회복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99년중 설비투자는 97년 규모의 77%내외로 예상).
 - 물량기준 순수출은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증가와 수출단가의 하락 등으로 성장기여도가 크게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내년(2000년)중에는 올해 두드러졌던 반등효과는 없겠으나 각 부문이 지속적인 확장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6.5%내외(6.4%)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됨.
- 최종수요 부문별로 보면, 99년중 98년중 지속되었던 생산감소세가 증가세로 반전하고 건설투자를 제외한 최종수요부문은 큰 폭의 증가세로의 전환함. 그러나 연간으로는 재고변동을 제외한 최종수요부문의 규모증가는 소폭(2-3%)에 그침에 따라 본격적인 총수요압력은 2000년 하반기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중 전년수준을 유지하였던 수출은 하반기중 반도체 가격의 상승 및 엔화강세와 동남아시아의 회복에 따른 수출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99년중 98년실적대비 6% 이상 증가한 1400억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표 33〉 1999/2000 국내경제전망

	1998년	1999.1	1999.2	1999.3	1999.4	1999년	2000년
국내 총생산	-5.8	4.6	9.8	10.4	7.2	8.0	6.4
(제조업)	-7.2	10.7	20.2	19.7	11.2	15.3	6.5
총소비	-8.2	5.0	7.2	7.7	7.1	6.8	6.4
민간소비	-9.6	6.2	9.0	9.4	9.0	8.4	7.0
고정자본형성	-21.6	-4.1	5.2	5.6	7.5	3.8	7.2
설비투자	-38.3	12.9	37.2	28.6	21.9	24.9	12.9
건설투자	-10.2	-13.7	-8.5	-5.5	1.4	-6.1	3.6
재고변화/GDP	-8.0	-4.4	-5.0	-6.2	4.4	-2.6	-0.4
통계상불일치/GDP	-5.7	-7.5	-6.7	-2.8	-4.1	-5.1	-2.6
생산자 물가	12.2	-3.5	-3.3	-0.4	1.2	-1.5	2.9
소비자 물가	7.5	0.7	0.6	1.8	3.0	1.5	3.9
경상수지	405.6	61.9	65.0	54.6	36.9	218.4	91.7
상품수지	416.3	67.8	81.2	65.0	54.9	268.9	152.2
수출	1321.2	314.8	358.2	359.2	368.8	1401.0	1514.0
증가율 (%)	-4.7	-3.7	4.1	14.3	9.7	6.0	8.1
수입	904.9	247.0	277.0	294.2	313.9	1132.1	1361.7
증가율 (%)	-36.2	7.6	20.7	41.2	32.1	25.1	20.3
서비스, 소득 & 이전	-10.7	-5.9	-16.2	-10.5	-17.9	-50.5	-60.6
원화 환율(Won/\$)	1204.0	1227.0	1157.0	1180.0	1170.0	1170.0	1120.0
엔화 환율(Yen/\$)	113.4	119.0	121.0	108.0	105.0	105.0	100.0
M3증가율 (%)	13.9	13.7	13.8	12.8	13.0	13.3	13.0
회사채수익률(%)	15.1	8.4	8.0	10.3	10.8	9.4	10.8

- 하반기중 반도체가격 상승으로 연간 반도체 수출은 당초 180억불내외에서 20억불이상 늘어난 200억불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엔화강세에 따른 반사이익이 자동차와 조선 그리고 해외건설등에 걸쳐 나타나고 있어 전년동기비 10%이상의 증가가 예상된다
- 특히 통화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경제가 활기를 회복하고 있으며 우려되었던 중국경제도 7%대의 성장이 예견되고 수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섬에 따라 안정적인 수출환경이 조성되고 있음
- 소비부문은 임금이 다시 상승하고 실업율이 낮아지면서 소비심리가 안정되고 제한적이거나 자산시장이 회복되는 등 구조조정과 경기추이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됨에 따라 99년중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민간소비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그림 3〉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비성향



- 설비투자는 대내외수요의 회복에 따라 실물부문의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수익성도 개선됨에 따라 설비투자는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여 지난해의 38.3%감소세에서 올해는 24.9% 그리고 2000년중에는 12.9%내외의 증가가 예상된다.
- 98년 4/4분기중 크게 감소한 건설투자는 재정투자가 집중된 99년 상반기중에도 큰 폭(10.8%)의 감소를 기록하였음. 건설투자는 하반기에도 주택건설의 위축, 신규 정부발주공사의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줄겠지만 감소폭은 다소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6%내외의 감소에 그칠 전망이다.
- 정부는 연간 재정투자예산 30조원중 20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한 바 있음.

2. 물가부문

- 98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차차 낮아지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세는 하반기들어 대내외 물가상승요인의 누적으로 오름세를 타고 있으나 99년중 평균 2.1%내외에 그칠 전망이다.
- 99년중 환율변동폭이 작아지고 국제원자재가격과 임금 등 각종 비용요인이 안정되는 외에 전반적인 총수요압력도 크지 않아 물가상승압력은 낮은 수준을 지속할 전망이다
- 연중 환율은 국내외환수급을 반영, 1170-1200원/\$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급격한 변동은 예상되지 않음

- 재고증감을 제외한 GDP규모는 전년수준을 유지 또는 소폭(2-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어 99년중 총수요(GDP Gap)압력에 의한 물가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대외거래부문

- 지난해 무역수지의 대폭적인 흑자에 힘입어 400억달러에 달한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 상반기중 수출부진과 수입증가로 126.9억불에 그쳤으며 하반기중 예상되는 수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연간 흑자폭은 220억불내외에 달할 전망.
- 98년 411.6억불의 흑자를 기록한 상품수지는 올 상반기중 149억불(전년동기 211.8억불)로 줄었으며 하반기에도 분기별 수입규모가 300억불내외에 달함으로써 연간 흑자규모는 270억불내외에 그칠 전망.
- GDP대비 경상수지는 98년중 13%수준에서 99년중에는 6%내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지난 해의 수입급감(-36.6%)과 재고감소 그리고 실물경기의 빠른 회복세를 반영하여 수입은 지난 해36.2%감소에서 99년중에는 20.3%의 증가세로의 반전이 예상됨.
- 지난 해 큰폭으로 축소되었던 서비스 및 이전수지의 적자는 99년중 다시 확대되는 추세에 있음. 적자 규모는 지난 해의 11.3억불에서 올해 50억불내외로 97년의 49.9억불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4. 금융부문

통화

■ 4/4분기 중 통화관리 여건 점차 악화 전망

- 유가 상승추세 지속, 빠른 경기회복, 부동산 가격 및 공공요금 상승 등과 더불어 물가 불안압력이 높아지면서 통화관리여건 악화 전망
- 4/4분기중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시화될 경우 통화당국이 단기금리 인상등 통화정책 방향을 다소의 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

■ 대우사태관련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기조 유지 전망

- 대우사태이후 투신권의 자금이탈에 따른 유동성확보 노력으로 시중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어 통화당국은 신축적 통화운영으로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대우사태로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입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증발 압력은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기업자금사정

■ 하반기중 기업들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 의존도 높여갈 전망

- 기업의 경우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자금수요 증대와 연말 대기업 부채비율 축소등으로 자금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반면에 계속되는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대우사태로 CP, 회사채,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도 다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기업들은 직접금융보다는 은행대출등 간접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상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여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금융시장

■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 당분간 지속 예상

- 4/4분기중 대우그룹 12개 계열사 워크 아웃의 순조로운 진행에 대한 불확실성과 투신사 구조조정 문제로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
- 수익증권 환매에 대비한 증권 및 투신사의 유동성 확보 노력도 계속될 전망
- 자금시장 여건 감안한 한은의 탄력적인 유동성 공급기조가 이어진다면 단기성 자금의 유동성은 무난할 전망

■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 확대 가능성

- 1998년 1월 ~ 1999년 7월까지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탁고는 약 134조원 증가

- 이중 개인, 기업 등 진정한 고객자금이 아닌 기관성 자금의 유입규모는 75조6,310억 원으로 전체 증가규모의 56.5%로 추정됨.
- 1999년 7월말 기준 공사채형 수익증권 잔고중 기관성자금은 90조원 내외이며 이중 단기기관성 자금의 비중이 높아 자금시장의 불안이 가시화되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금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만기가 몰려 있는 10~11월중에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환매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표 34 > 부문별 공사채형 수익증권 보유현황

단위 : 억원, %

		개인	기업	금융기관		기타	합계
				소계	은행		
잔액	1999.7	871,460 (41.5)	229,042 (10.9)	897,710 (42.8)	408,119 ²⁾ (19.5)	99,622 (4.7)	2,097,834 (100.0)
증감	98.1~99.7	398,930 (29.8)	167,500 (12.5)	756,310 (56.5)	—	15,700 (1.2)	1,338,440 (100.0)
	98.1~12	343,930	122,500	598,870	—	10,700	1,076,000
	99.1~7	55,000	45,000	157,440	141,430 ²⁾	5,000	262,440

주 : 1) 공사채형 잔액 및 증감은 한국은행의 『자금순환』을 근거로 한 추정치

2) 은행권 수익증권 보유 현황은 「금융권 자금동향」 금융감독위원회 8월 16일 보도자료 및 한국 은행의 『우리나라 금융시장』 P 16 참조

<표 35 > 공사채형 수익증권 만기도래 규모

단위 : 억원, %

	99.8	9	10	11	12	99.8~12
공사채형 만기규모 (MMF 제외)	52,454	37,701	205,745	212,343	9,106	517,349
MMF 만기규모	—	—	—	—	—	322,700

자료: 투자신탁협회, 『투자신탁 가격정보』

장단기 금리

■ 1999년 4/4분기중 통화정책 방향 변화 및 콜금리 상향 유도 여부 주목

- 41조원에 달하는 공사채형 수익증권의 대규모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 10~11월중에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금리상승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 특히 4/4분기 중에는 물가관련 요인들을 감안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의 변화여부가 금리에 영향을 줄것임
- 한은의 급격한 통화긴축으로의 정책전환이 쉽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임.
- 그러나 한은이 물가관련 요인들을 예의 주시하는 가운데 4/4분기중 콜금리를 점진적으로 소폭 상향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

■ 물가불안감 지속되는 가운데 시중자금단기 부동화로 장기금리 상승 전망

- 물가불안 확대로 한은의 통화관리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자금의 투신자금 이탈 지속과 이에 따른 자금의 단기 부동화로 채권매수여력은 약화될 전망이다
- 특히 대우그룹의 워크 아웃 추진에 따른 은행권의 대우채무 및 이자 동결, 출자전환, 신규자금지원 등으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도 확대될 가능성
-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이 크게 확대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그동안 금리안정을 위해 연기되었던 국채가 9월부터 발행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 채권공급물량은 증대될 예상.

■ 회사채유통수익률 하향안정화의 어려움 예상

- 정부의 금리안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감, 투신자금이탈 지속 및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채권물량공급 확대 등 채권수급상황 악화 등으로 장기금리가 하향안정화는 어려울 전망이다
- 특히 공사채 만기도래가 집중되어 있는 4/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장기금리가 금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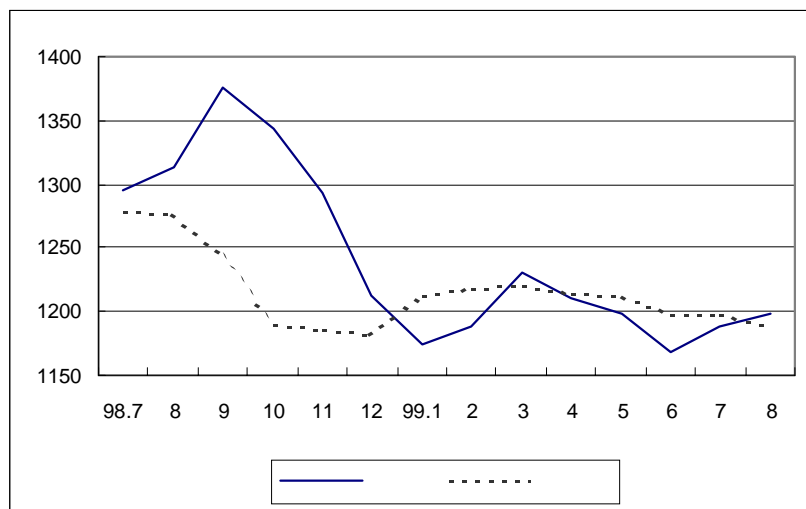
■ 외화수급조절대책으로 인해 원·달러환율 10월중 추가 상승 가능성

- 4/4분기중 10월 8일 중장기외채 이자지급과 더불어 일부 금융기관 및 기업의 중장기외채 조기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해외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외환당국도 외환보유고를 이중 상당부분을 연말보다는 9~10월중 확보할 것으로 보임
- 원·달러환율은 9~10월중 추가 상승할 가능성

■ 연말로 접어들수록 원·달러환율 공급우위로 전반적인 하락세 예상

- 국제시장에서 엔화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추이도 일정정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원·달러환율이 큰 폭의 상승세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전망
- 원·달러환율은 연말로 접어들면서 계절적인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및 기업의 구조조정 성과 가시화로 공급우위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일 예상
- 본원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실질실효환율을 기준으로 8월말 현재 원화의 적정환율은 1181.42원/달러내외로 평가되나 8월말현재 1198.31원으로 1%정도 절하된 수준에서 절상압력을 받고 있음

<그림 4> 실제환율과 적정환율(실질실효환율 기준)



제 4장

경제현안과 정책과제

1.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인식

불균형, 편중현상의 심화

■ 기업간 경기 차별화

- 대우사태로 인하여 대우계열사 및 대우관련 협력업체는 일부 생산중단을 겪고 있는 반면 반도체, 정보통신 및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음.
- 99년 1~7월중 제조업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20.4%의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3개 업종은 동기간 동안 47.7%의 증가를 기록하여 2배 이상 상회하는 급증세를 시현.
- 이와 동시에 수출부문에서의 업종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99년 1~6월중 총수출은 전년동기대비 -0.9%로 부진하였으나, 3개 호황업종은 동기간 동안 3.0% 증가하였음.
- 일부업종의 호황이 한국경제전체의 경쟁력회복으로 오인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 이는 이미 93~94년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외환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던 과거 경험을 되새길 필요가 있음.

■ 자금시장간 불균형

- 대우사태의 여파로 투신 및 증권사로부터 자금이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은행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
- 투신사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7.19 대우그룹 구조조정 발표 이후 32조원, 8월 이후로는 26조원 감소.

<표 36 > 투신사 수익증권 증감추이

단위:10억원

	99.5	6	7	8	9.1~10
공사채형	-493	-9,991	-1,808	-20,990	-5,105
주식형	5,302	7,039	10,962	2,333	214

- 반면, 은행예금은 MMDA 등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등 단기예금을 중심으로 8.1~9.10 중 20조원 증가.

<표 37 > 은행예금추이

단위:10억원

	99.5	6	7	8	9.1~10
은행예금	-361	2,242	3,107	13,513	6,078
요구불	688	707	-2,423	1,420	968
저축성	-1,049	1,534	5,530	12,094	5,110

-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인하여 초단기 자금이 산업자금화 하지 않고 금융시장을 떠돌아 다니는 부동 현상이 심각.
- 9월 8일 현재 증권사 고객예탁금 10조원, 투신사 MMF 25조원, 투신사 단기공사채(MMF 제외) 64조원, 은행 요구불 예금 21조원, 은행 MMDA 28조원 등 15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금리상승을 기대하여 대기자금화되고 있음.

■ 상반된 해외요인

- 엔고의 지속 및 반도체 가격의 상승으로 반도체, 조선 등 주력수출업종이 혜택을 받는 반면 유가의 급등으로 수입물가가 상승하여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는 등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 일본경제의 회복세와 더불어 국제자금이 일본증시로 유입되면서 엔화강세가 지속되고 있음. 98년 8월 달러당 147엔 까지 절하되었던 엔화는 99년 9월 현재 105엔대에 접근하고 있으며 연내 100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종의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전망도 밝음.
- 반면,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기업의 비용상승 압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물가에 대한 압력도 점증하고 있음.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및 국제경제회복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하여 연초대비 2배 이상 오른 배럴당 25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30달러 까지도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

라 국내물가가 불안해지고 있으며 수입은 늘고 수출이 줄어들어 무역수지 또한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실물, 금융지표의 상반된 모습.

- 국내경기가 되살아 나면서 생산, 소비, 투자 등 실물부문은 활황세가 계속되고 있는 반면 대우사태 이후 금융부문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
- 산업생산은 6월의 29.7%에 이어 7월중에도 33.1%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
- 도소매 판매액은 6월의 14.2%에 이어 7월중에도 18.6% 증가하여 소비활동이 확산.
- 작년중 40%에 가까운 대폭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설비투자도 6월의 54.6%에 이어 7월중 57.2%의 높은 증가세 지속.

〈표 38〉 주요 실물경제 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98	98.1/4	2/4	3/4	4/4	99.1/4	2/4	5	6	7
생산	-7.3	-6.2	-12.2	-9.5	-1.6	12.5	22.7	21.7	29.7	33.1
도소매 판매	-12.7	-11.2	-16.0	-15.1	-8.3	6.0	10.8	9.4	14.2	18.6
설비투자	-38.7	-31.3	-48.6	-43.2	-28.7	10.9	42.4	43.3	54.6	57.2

- 반면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시장이 불안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금리와 어음부도율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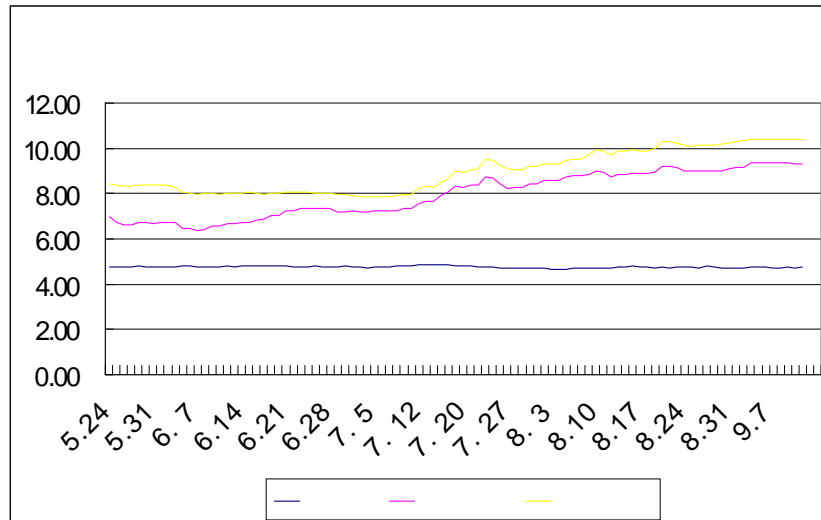
〈표 39〉 금리, 부도 및 주가 추이

	98.12	99.1	3	6	7	8
회사채 금리(%)	8.0	8.1	8.1	7.9	9.2	10.2
어음부도율(서울,%)	0.13	0.13	0.10	0.07	0.11	1.58
주가	562		619	883	970	938

주: 1) 회사채 금리, 주가는 월말 기준.

2)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전 수치.

〈그림 5〉 주요 금리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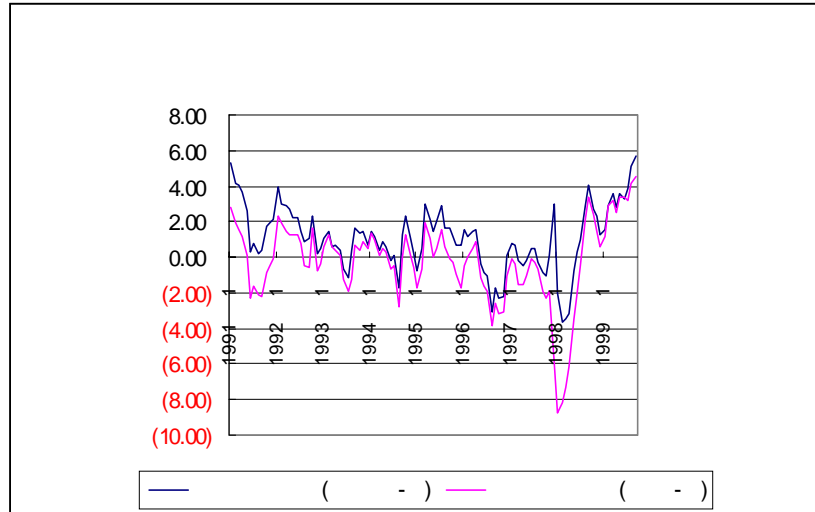
대우그룹 구조조정 작업의 진행

- 대우그룹이 7.19 구조조정 방안을 제시한 이후 동 그룹의 구조조정 문제가 현재화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대우그룹의 99년 6월말 현재 부채는 61.8조원으로서 98년 경상 GNP(443조원)의 14%에 해당되는 대규모임.
 - 이미 진행중인 6~64대 대기업 workout 대상기업의 총부채액 33.6조원과 비교해서는 두 배에 이름.
- 이처럼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대우그룹은 계열기업간 자금, 인력, 지급보증, 출자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유로 인하여 구조조정 작업이 시간을 요구하고 있음.
- 대우그룹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처방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화된 방안이 적용되고 있음. 최초에는 단기 유동성 지원 및 자산 매각을 통한 자구노력 -> workout -> 은행관리 등으로 처리방향이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우채권과 관련한 대규모 환매사태가 우려되고 회사채 거래가 격감한 가운데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2. 향후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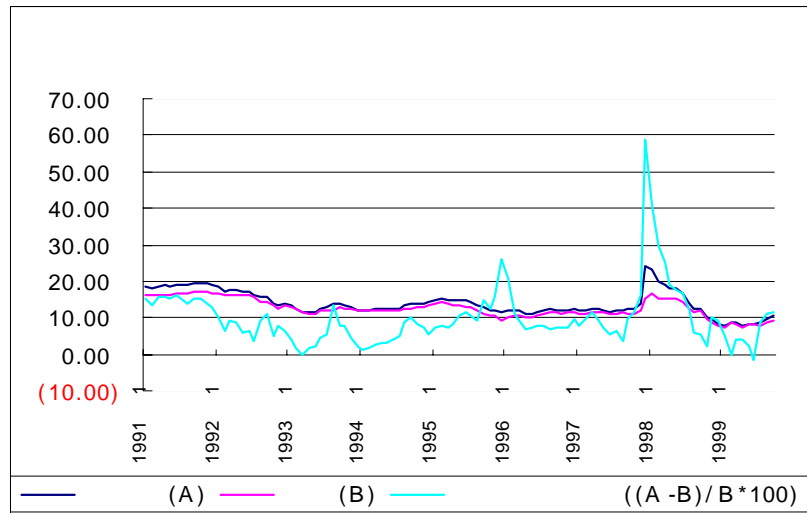
- 현재의 경기상황은 서로 상반된 국내외 요인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대우그룹 계열사 및 협력업체는 부도위기에 몰린 반면 반도체, 정보통신, 자동차 업종은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 엔고의 지속으로 가격경쟁력이 향상된 업종은 수출을 중심으로 활황세를 보이는 반면,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무역수지 악화 및 물가불안이 우려되고 있음.
- 그리고 98년 7월 이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수중심 성장정책’으로 인하여 금년 상반기중 경기회복이 달성되었지만 하반기 들어서 민간수요 증가로 인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현재화됨에 따라 동 정책의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었음.
- 그러나 대우그룹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투신권에 대한 대규모 환매사태가 우려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짐에 따라 금리의 안정화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이를 반영하여 회사채 및 국고채 금리 등 장기시장금리는 크게 상승하고 있지만 통화당국의 개입이 가능한 콜금리는 대우사태 이후에도 4.7% 내외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가 91년 이후 최대수준인 5.7%(회사채-콜), 4.6%(국채-콜)에 달하고 있어서 시장에 팽배해 있는 금리인상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향후 금리상승을 기대하는 경우 장단기 금리간에 양의 격차가 크게 나며, 반대로 금리하락을 예상하는 경우 음의 격차가 나게 되는데, 현재의 장단기 금리격차는 91년 이래 가장 큰 양의 수준을 기록.
- >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시장참가자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고 있는 팽창기조의 통화정책을 계속 지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그림 6> 장단기 금리차



- 한편 자금시장 및 채권시장의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채권금리가 시장기대금리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채권시장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등 금융시장간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위험프리미엄(회사채와 국채금리간 차이, %)은 9월중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91년 이후 월평균 수치인 9.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대기업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회사채 금리가 시장의 수급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는 정부당국이 투신권의 채권매도를 자제하게 하고 은행의 채권매수를 권유하는 창구지도에 기인하고 있음. 한편 최근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인상을 원상복귀시킨 조치도 시장금리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고 있음.

〈그림 7〉 금리 및 위험프리미엄 추이



-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과제이지만, 금융시장이 내생적인 힘으로 스스로 적응해 나가도록 정부에서는 시장개입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시장간 자금이동을 단절시키기 보다는 자금흐름을 일정부분 뚫어줌으로서 금융시장 자체가 어떻게 반응해 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사태해결방안의 수립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음
- 또한 최근 소비활동의 활발한 증가세로 인하여 민간수요 측면에서 다소 과열 기미가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금리 유지를 위한 시중유동성 공급은 향후 상당한 인플레이션 비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IMF사태이후 우리경제가 국제 자본시장에 완전개방된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환율정책도 보다 시장중심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졌음.
- 예를 들어, IMF대출금의 조기상환이나 시중은행의 만기연장 외채의 조기상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원화를 절하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오히려 경상흑자로 인한 평가절상 압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시장의 자율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함.

<부록1>

경제정책정보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1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한도 폐지 및 공모주식의 배정기준 자율화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공모와 관련 기관투자자와 일반청약자에 대한 1인당 청약한도를 폐지 - 다만 주간사회사 및 수요예측에 참가하는 증권회사로 하여금 공모주식의 공정한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시토록 함 - 거래소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청약한도를 폐지 - 공모주식의 청약단위에 대한 규제를 폐지 - 청약안내 공고에 최근 3년간 공개주간사업무 실적을 간략히 기재토록 함
6/1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러시아 단기수출보험 인수 재개(99.6.1 시행) - (1) 러시아 정부나 중앙은행이 지급보증하는 거래나 (2) OECD 국가에 본점을 둔 은행(13개)이 발행한 신용장 또는 지급보증 거래에 대해서 수출보험 인수를 재개 - 對러시아 단기수출보험 인수는 1998년 8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선언 이후 전면 중단되어 왔음
6/5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 경제개혁추진과 경기대책 추진 발표 - 4대분야의 구조개혁을 금년말까지 내실있게 마무리하는데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관련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이를 적극 뒷받침 - 특히 기업부문 구조개혁중 5대 재벌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핵심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며 비주력분야의 신규사업 확장을 억제 - 4대 경제개혁과제의 추진이 소프트웨어부문까지 진전되어 내실화되도록 뒷받침하여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도록 함 - 경기관련 대책은 성장률 상향에 집착하지 않고 내년 이후의 지속적 성장기반이 되는 투자와 수출, 기술개발에 주력 - 경기회복 추세가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므로 금년말에 실업률이 6%대로, 실업자 수가 130만명 수준까지 축소되도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에 주력 - 외환사정이 회복되고 있더라도 외국인 투자는 적극 유치하여 우리경제의 세계화와 투명성 제고를 뒷받침 - 저물가,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서민생활의 안정과 기업경영개선을 뒷받침 - 민간수요 회복에 따라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가 증대되면 재정적자를 점진적으로 감축 -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 - 주요선진국의 경기변화와 국제자금흐름 등 국제경제여건 변화를 예의주시하여 우리경제에 대한 충격이 완화되도록 대응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9	재정경제부	<p>○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 6개월 연장</p> <p>-1999년 들어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한을 1999년 12월 31까지 6개월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1999년 7월 1일 시행)</p> <p>* 1997. 6. 3~99. 6.30까지 제조업 등이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금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당해연도 미공제액은 4년간 이월공제)하여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p>
6/11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p>○상회신용금고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p> <p>-98년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미만이거나 99.3말 기준 자산·부채평가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13개 금고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 「경영개선 명령」조치 부과</p> <p>· 대상 금고 : 서울(대한, 성원), 부산(동화, 신세계), 대구(대한, 신양), 대전(국일, 쌍인), 경기(부일), 경남(한일), 경북(영천), 제주(대기, 삼일)</p> <p>· 영업의 정지 : 99.6.11.부터 8.10.까지(2개월)</p> <p>· 임원의 직무정지(2개월) 및 관리인 선임</p> <p>· 경영개선계획 제출 : 99.7.10.까지</p> <p>-앞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 13개 금고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하여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 후 99.8.10.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공매 등을 통하여 정리절차 개시</p>
6/16	산업자원부	<p>○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및 단위가격표시제도 실시(1999.9.1 시행)</p> <p>-그 동안 제조업자가 법적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표시해왔던 권장(희망) 소비자가격을 고가표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TV, 신사정장 등 12개 품목에 대해 표시를 금지</p> <p>-아울러 상품에 대한 가격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수량·중량단위로 거래되는 상품중 우유, 화장지 등 15개 품목에 대해 단위가격표시(예 : 100g 당 950원)제도를 실시</p>
6/16	건설교통부	<p>○국민주택기금 운용변경 계획 발표(1999.6.16 시행)</p> <p>-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의 분양주택 중도금과 소형 분양주택자금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p> <p>· 공공분양주택, 분양중도금,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대출금리를 0.5%p 인하하고 전세반환자금의 금리를 1.5%p 인하</p> <p>-또한 중형 분양주택 건설자금과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1조 6,711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추가로 대출</p>

일자	주부부처	주요정책
6/18	정부	<p>○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급생활자 등에 대한 세부담 경감에 1.4조원, 중산층과 서민층을 위한 재정지출 증가에 1.1조원 등 총 2.5조원 규모의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추경예산안을 6월중 임시국회에 제출하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 -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소득규모(근로소득공제한도)를 연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조정 ·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 근로소득 특별공제 한도 인상 · 비과세되는 근로자우대저축 가입대상 확대 ·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의 손비로 인정 -일자리창출을 위한 조세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벤처기업 창업시 2년간 취득세·등록세 등을 현행 75% 감면에서 100%로 전액 면제하고 창업 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대상기업의 범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 출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현행 출자금의 20%에서 30%로 확대 ·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에게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50%까지 손실적립금을 인정 · 설비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6개월 연장(99.6.30 →99.12.31)하여 투자를 촉진 · 중고설비투자 및 과잉설비 폐기에 대한 세제지원 · 기업 분사 및 노동자의 부도중소기업 인수시 세제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본사 및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강화 · 99.6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기한을 국민주택 규모(25.7평)이하의 소형주택에 한하여 99년말 까지로 연장 <p>-중산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사업에 1.1조원 지출</p>
6/29	산업자원부	<p>○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99.7.1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 등의 무역거래를 수출실적으로 인정, 구매승인서 발급신청시 소요량증명서 제출 폐지, 중계무역의 범위 확대, 산업 설비수출 승인신청서류의 간소화 등이 주요 개정내용임 -이는 인터넷 무역이라는 무역환경 변화의 입법적 수용,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거래형태의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 무역관련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을 위한 조치임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6/30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선다변화품목공고 폐지 -지난해말 32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해제한 데 이어 컬러TV, VCR, 승용차, 승용차용 타이어, 굴삭기, 수직제어식 수평선반 등 잔존 16개 수입선다변화품목을 해제 -이에 따라 국가별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1977년부터 운영되어온 수입선다변화제도는 완전히 폐지됨
7/2	재정경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제도 세부 시행방안 발표 -봉급생활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사용금액의 1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소득공제)하여 근로소득에서 경감 · 소득공제 한도 : 연간 300만원과 연간 총급여액 10%중 적은 금액 · 공제대상 기간 : 전년12월 ~ 당해연도 11월 · 공제대상 카드사용자 범위 : 배우자 및 동거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존속 포함)의 신용카드 사용액 ·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백화점계 카드 포함,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 제외)
7/22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채전문딜러 지정 -98. 8. 발표된 「국채제도 개선 및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에 도입을 추진하여 금년 3~6월 제도를 시험운영하고 신청기관의 실적을 평가하여 24개 기관을 최초 국채전문딜러로 선정 · 은행(12개사) : 국민은행, 농협, 산업은행, 신한은행, 씨티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중소기업은행, 파리국립은행, 평화은행, 하나은행, 한빛은행 · 증권(11개사) : 교보증권, 굿모닝증권, 동양증권, 대신증권, 대우증권, 대유리첼트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LG증권, 한화증권, 현대증권 · 종금 (1개사) : 동양종금
7/23	건설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확정·발표 -전국 14개 도시권중 춘천권, 청주권, 전주권, 여수권, 진주권, 통영권, 제주권 등 7개 지방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되며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마산·창원·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도시권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게 되나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해제 -한편 실제 해제되는 데는 7개의 해제 도시권은 6개월 정도, 나머지 7개의 부분 해제 도시권은 1년여 정도 소요

일자	주무부처	주요정책
7/23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영업정지기간 연장 - 6.1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아 영업정지중인 (서울)대한상호신용금고등 13개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 1999. 10. 31.까지 영업정지기간 등을 연장 · 연장기간 : 1999.8.11 ~ 1999.10.31 (당초 : 1999.6.11 ~ 8.10) * 대상금고 : (서울)대한, (서울)성원, (부산)동화, (부산)신세계, (대구)대한, (대구)신양, (대전)국일, (대전)쌍인, (경기)부일, (경남)한일, (경북)영천, (제주)대기, (제주)삼일 - 한편 경영개선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받는 금고는 즉시 영업재개를 허용할 예정이며, 불승인 금고는 퇴출절차를 밟게될 예정
7/23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설립 등 인허가지침 제정·시행 - 대상업종 : 총 12개 업종(10개 업종별 지침 제정) · 은행, 증권산업(증권회사, 투신(운용)사, 선물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신탁회사,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신용정보업자 - 적용범위 : 설립, 합병, 전환, 영업양수도, 해산 또는 폐지, 주요 경영업무 등
7/29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생명 해외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 교환 - 정부는 미국의 대형생명보험회사인 뉴욕생명(New York Life International, Inc.)과 국제금융공사(IFC :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국민생명 매각에 관한 주요조건에 합의하고 양해각서(MOU : 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

<부록2>

주요경제통계

경제성장률 소비 투자

연월	경제성장률		1인당 GDP US \$	소 비		투 자		
	GDP	제조업		민 간	정 부	총고정투자	설 비	건 설
	전년동기대비(%)		전년 동 기 대 비 (%)					
1994년	8.3	10.8	8,998	8.2	1.9	10.7	23.9	3.7
1995년	8.9	11.3	10,823	9.6	0.8	11.9	18.1	8.0
1996년	6.8	6.8	11,380	7.1	8.2	7.3	9.1	6.1
1997년	5.0	6.6	10,307	3.5	1.5	-2.2	-8.7	2.3
1998년	-5.8	-7.2	6,823	-9.6	-0.1	-21.1	-38.5	-10.2
1997년2/4	6.2	7.8	-	4.4	2.5	2.2	1.3	2.9
3/4	5.5	7.9	-	5.3	2.3	-3.6	-12.6	2.7
4/4	3.6	4.9	-	-0.1	-0.4	-7.2	-25.9	4.5
1998년1/4	-3.6	-4.6	-	-9.9	1.3	-20.6	-38.3	-5.9
2/4	-7.2	-10.4	-	-11.2	-0.7	-23.7	-46.1	-7.8
3/4	-7.1	-9.1	-	-10.4	-0.6	-22.2	-39.3	-12.0
4/4	-5.3	-4.7	-	-6.9	-0.4	-17.9	-27.4	-13.7
1999년1/4	4.6	10.7	-	6.2	-1.7	-4.3	12.9	-13.7
2/4	9.8	20.1	-	9.0	-2.6	4.9	37.2	-8.5

무역 · 국제수지

연월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 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 품	경 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1992년	766.3	6.6	817.8	0.3	-17.6	-39.4	171.5	788.4
1993년	822.4	7.3	838.0	2.5	23.2	9.9	202.6	808.1
1994년	960.1	16.8	1,023.5	22.1	-28.6	-38.7	256.7	788.7
1995년	1,250.6	30.3	1,351.2	32.0	-44.4	-85.1	327.1	774.7
1996년	1,297.2	3.7	1,503.4	11.3	-149.6	-230.0	294.2	844.2
1997년	1,361.6	5.0	1,446.2	-3.8	-31.8	-81.7	88.7	1,415.2
1998년	1,323.1	-2.8	932.8	-35.5	416.3	425.6	485.1	1,204.0
1998년12월	124.2	-0.1	86.5	-15.3	33.9	30.8	485.1	1,207.8
1999년1월	92.6	2.9	86.3	15.4	17.5	22.0	500.9	1,175.3
2월	93.4	-16.8	76.4	-3.1	22.0	18.2	519.6	1,222.4
3월	116.6	-2.9	93.1	12.3	28.3	21.7	544.5	1,227.0
4월	115.1	-4.5	90.8	10.7	26.8	19.5	563.8	1,188.0
5월	114.5	1.3	94.5	24.6	25.2	21.0	587.3	1,186.2
6월	129.3	12.4	101.9	31.5	29.3	24.6	604.3	1,157.6
7월	118.2	17.9	97.6	37.6	29.5	28.0	639.8	1,204.0
8월	114.4	17.8	98.8	38.8	-	-	647.8	1,184.6

주: 최근 데이터는 잠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후 수정될 수 있음

1) 96년 이후는 가용외환보유액

물가·실업·이자율

연월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M2	MCT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1993년	1.5(2.0)	4.8(5.8)	2.8	10.9	18.6	22.9	12.6	728.2
1994년	2.8(3.9)	6.2(5.6)	2.4	15.5	15.6	23.5	12.9	965.7
1995년	4.7(3.4)	4.5(4.7)	2.0	9.9	15.5	21.6	13.8	934.7
1996년	3.2(3.5)	4.9(4.9)	2.0	12.2	16.2	21.7	11.9	833.4
1997년	3.9(10.9)	4.5(6.6)	2.6	5.2	19.2	15.3	13.4	654.5
1998년	12.2(3.6)	7.5(4.0)	6.8	-3.1	19.0	7.5	15.1	406.1
1999년1월	-1.8	1.5	8.5	-11.5	26.3	3.1	7.9	597.6
2월	-4.3	0.2	8.6	28.0	29.9	4.9	8.6	533.0
3월	-4.3	0.5	8.0	13.1	33.7	6.9	8.6	586.2
4월	-4.1	0.4	7.1	12.6	34.6	6.9	7.6	721.1
5월	-2.6	0.8	6.4	13.9	30.6	6.3	8.3	745.4
6월	-3.2	0.6	6.2	14.8	27.1	5.9	8.1	841.4
7월	-2.9	0.3	6.2	-	24.2	6.2	8.6	971.4
8월	-1.6	0.9	-	-	25.0	7.6	9.9	931.6

주:2) ()는 전년말월대비증가율. 3)평잔기준

산업활동

연월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 업	평균가 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 계수주 ⁵⁾	기계류 수입 ⁶⁾	건설수주	건축허가면적		
	전년동기대비(%)									
1993년	4.4	77.9	8.5	3.9	12.1	1.1	19.3	24.5	15.2	26.7
1994년	10.9	81.3	8.7	9.3	26.9	37.6	18.5	-1.3	16.8	-8.5
1995년	12.0	81.0	8.0	7.4	15.8	31.5	24.4	1.0	3.3	-1.2
1996년	8.7	80.8	7.0	5.8	16.5	-0.7	21.4	-3.0	-13.2	-2.5
1997년	5.3	79.0	3.2	-1.8	3.3	-22.8	5.4	-0.4	-26.2	2.6
1998년	-7.3	68.1	-12.7	-21.4	-30.5	-52.9	-42.5	-55.0	-68.2	-50.3
1999년1월	14.8	69.6	2.6	7.8	39.6	7.3	-20.5	-56.4	2.2	-67.1
2월	3.9	69.7	7.4	11.8	-1.0	-12.7	-52.0	-50.5	30.0	-57.6
3월	18.8	74.7	8.3	19.5	15.8	28.3	-51.1	-29.6	36.2	-37.9
4월	17.1	74.1	9.0	13.6	23.6	4.2	39.3	4.1	64.5	-4.0
5월	21.7	76.6	9.4	17.8	40.5	15.0	89.6	47.1	256.4	49.8
6월	29.7	79.7	14.2	20.3	51.1	46.9	-6.2	16.8	272.3	5.6
7월	33.1	81.0	18.6	23.4	29.4	43.2	0.1	49.0	243.7	39.8

주: 4)내수용 5)내수용, 선박제외 6)94년이전 수치는 선박제외